

11-15 (통권 제 485호)

2011. 4. 26.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 최근 중국 수입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장후석, 임상수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3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최근 중국 수입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최근 중국 수입 구조의 특징 2

3. 시사점 9

【별 첨】 12

■ HRI 경제 지표 14

■ 개 요

중국 경제는 2001년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연평균 약 5.7%p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개도국이 수출 드라이브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할 경우 낮은 자원 이용 효율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중국의 수출의존도(수출/GDP)는 2000년 23.4%에서 2009년 39.2%로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수입의존도(수입/GDP)도 21.0%에서 30.6%로 수출에 연동되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수입의존도가 수출의존도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입 상승세 둔화 현상은 중국의 경제·산업 구조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고 그것이 중국의 교역 구조 특히 수입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의 대상국별, 품목별, 무역형태별로 수입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 최근 중국 수입 구조의 특징

(국가별 수입) 첫째, 중국의 수입대상 상위 5개국의 수출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수입 지역 다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5대 수입국은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독일의 제조업 강국들이며 2000년대 들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다. 5대 수입국의 수입 비중은 2000년 54.6%에서 2010년 44.0%로 하락하고 있다. 참고로 2010년 현재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총수입 비중은 약 10% 수준이다.

둘째, 반면 중국의 자원부국에 대한 수입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중국의 수입대상국중 상위 6~10개국은 호주, 말레이시아, 브라질, 태국,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이들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원자재 수출에 특화된 경우가 많다. 중국의 이들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2%에서 2010년 15.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부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는 중국의 고성장에 따른 자원 수요 급증,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품목별 수입) 셋째, 중국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은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1차 산품에 대한 수입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1차 산품에 대한 수입은 2000년 약 305억 달러(총수입의 13.5%)에서 2009년 2,318억 달러(총수입의 23.1%로 증가하였다. 참고로 2009년 현재 석유와 철광 수입이 1차산품 수입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주요 수입원자재이다.

넷째, 중국의 중간재(반가공품 및 부품)의 수입 비중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술집약도가 높은 부품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반가공품 및 부품의 총수입 대비 비중은 2000년 62.3%에서 2009년 현재 52.9%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부문별로 보면 반가공품 수입 비중은 2000년 38.1%에서 2009년 25.7%로 점차 하락하는 반면, 부품 수입 비중은 2000년 24.2%에서 27.2%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절대적인 수준은 크지 않지만 소비재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중국

이 세계의 주요 소비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2009년 현재 소비재 수입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보면 2000년 4.2%에서 2009년 5.2%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소득의 증가로 구매력이 높아져 중국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상위 5대 수입대상국들의 품목별 대중국 수출 구조는 차이가 있다. 일본과 한국은 대중국 수출중 부품 수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자본재가 미국은 반가공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재의 경우 각국의 대중국 총수출에서 대중국 소비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이 12%, 미국 9%, 일본이 6%인데 반하여 한국은 2%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국을 소비 시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생산기지로 인식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무역형태별 수입) 여섯째,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그동안 세계의 공장지로 일컬어지던 생산기지로써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국가통계국 및 중국해관총서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가공무역/총무역 비중은 1990년 38%에서 1998년 53%로 상승하는 추세이었으나 이후 하락하여 2010년 현재 39%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가공수입/총수입 비중의 경우 2000년 41.1%에서 2010년 29.9%로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 발전에 따른 임금 등 생산 비용의 증가, 중국 정부의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노력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최대 가공 수입 대상국은 한국으로 중국 전체 가공 수입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별 가공수입/국별 총수입 비중(국별 가공무역형 우회수출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가공무역형 우회수출 제품이 대부분 원자재 또는 중간재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1차산품, 반제품 및 부품에서 가공무역형 우회수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약 7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가 자국의 부가가치 확대에 큰 도움을 주지 않는 가공무역에 대한 품목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중국에 대한 가공무역은 장벽에 부딪힐 것으로 판단된다.

※ 가공수입은 중국의 가공무역 생산기지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반제품, 부품 등의 중간재에 대하여 중국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행위임

■ 시사점

중국 수입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 **첫째**, 대규모 개방 경제인 중국의 원자재 수입 증가 추세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희소 원자재 확보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둘째**, 저부가가치 반가공품보다는 고부가가치 부품 및 자본재에 대한 수출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 **셋째**, 잠재력이 높은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억제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을 단순한 가공 무역 기지가 아닌 동북아 지역의 주요 생산단계상 거점 국가로 전환하는 분업 구조의 재편이 요구된다.

개요

- 중국의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전력으로 수출 및 수입 의존도 증가 지속
- 그러나 2005년 이후 수입의존도가 수출의존도를 크게 하회
- 수입 둔화는 중국의 경제·산업 구조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개연성을 시사

최근 중국 수입 구조의 특징

- | | |
|---------------------|--|
| 국가별 수입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수입 상위 5개국의 수입 비중 점차 축소 - 반면 중국의 자원부국에 대한 수입 비중 증가 |
|---------------------|--|

- | | |
|---------------------|--|
| 품목별 수입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원자재 수요는 여전히 증가세 지속 - 중국 반가공품 및 부품의 수입 비중이 점차 하락 - 기술집약도가 높은 부품 수입 비중 증가 - 소비재 수입 비중 증가, 내수 시장 잠재력에 주목 |
|---------------------|--|

- | | |
|-----------------------|---|
| 무역행태별 수입구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가공수입/총수입 비중 급감 - 2000년 41.1%에서 2010년 29.9%로 감소 - 중국의 최대 가공 수입 대상국은 한국 - 대한국가공수입/총가공수입액 약 17% |
|-----------------------|---|

시사점

- 첫째, 중국 원자재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 희소 원자재 확보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
- 둘째, 기술집약적 부품 및 자본재에 대한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셋째, 잠재력이 높은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
- 넷째, 중국을 단순한 가공무역 기지가 아닌 동북아 생산단계상 주요 거점국가로 인식 전환

1. 개 요

○ (연구 배경) 2005년 이후 중국의 수입 상승 추세가 수출에 비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산업 구조에 일정 부분 변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경제는 2001년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음

· 중국이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출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연평균 약 5.7%p로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의 수출의존도(수출/GDP)¹⁾는 2000년 23.4%에서 2009년 39.2%로 높아짐

- 또한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은 필연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중국의 수입의존도도 수출의존도의 경우처럼 상승 추세를 보임

· 중국의 수입의존도(수입/GDP)는 2000년 21.0%에서 2009년 30.6%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한편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의 차이가 2000~2004년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5년 이후 수입의존도가 수출의존도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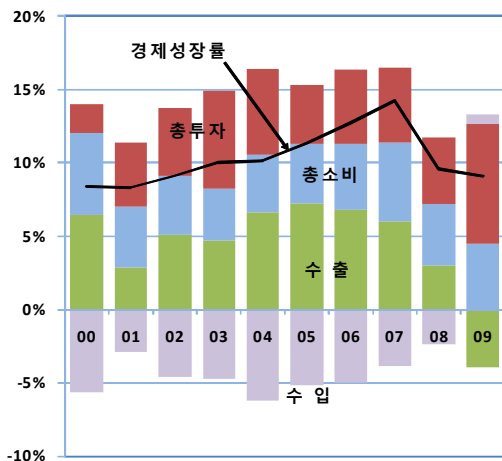
· 2000~2004년 기간 동안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의 차이는 큰 변동 없이 2%p대에 머물렀으나 2005년 이후 평균 8%p로 확대됨

- 이러한 중국의 수입 상승 추세의 상대적 둔화 현상은 중국의 경제·산업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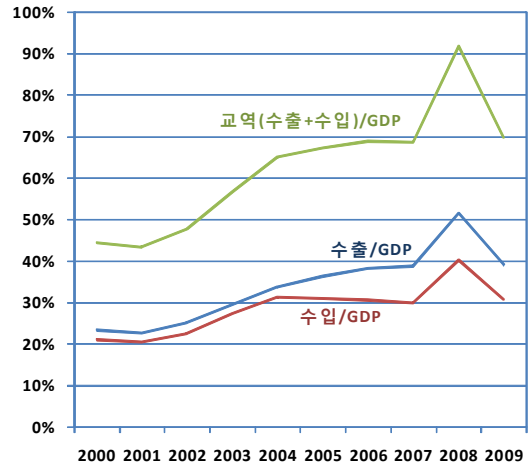
1) 여기서 수출은 국민계정상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의미함.

조에 변화가 있고 그것이 중국의 교역 구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중국의 지출항목별 경제성장 기여도 >



< 중국의 수출입/GDP 비중 >



자료: UN Statistical Division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주요 부문별 성장 기여도는 불변 가격 기준, 수출입/GDP 비중은 명목 가격 기준.

○ (연구 목적) 이에 최근 중국의 대상국별, 품목별, 무역형태별로 수입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함

2. 최근 중국 수입 구조의 특징

○ (국가별 수입) 중국의 5대 수입국은 일본, 한국, 대만, 미국, 독일이며 2000년대 들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낮아지는 추세임

-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 미국, 대만, 독일 등의 순서임

· 2010년 현재 중국의 총수입액은 약 1조 3,755억 달러로 이중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은 1,763억 달러로 중국의 대 일본 총수입중 12.8%를 차지함

- 한국은 일본에 이어 중국의 2위 수입국으로 2010년 현재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1,380억 달러로 총수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대만(8.4%), 미국(7.4%), 독일(5.4%)의 순서이며, 수입 대상국 상위 10개국의 수입 비중은 2010년 현재 약 60%에 이르고 있음
- 2000년 이후 중국의 수입 시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대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중국의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2000년 18.4%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2005년 15.2%, 2010년 12.8%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중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10~11%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음
 - 대만과 미국에 대한 수입의존도의 경우도 점차 낮아지는 모습인 반면 수입 대상국중 독일과 상위 6~10위 국가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아짐
 - 이러한 수입 시장의 다변화 경향은 상위 6~10위권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자원 수출국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중국의 원자재 수입 증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상위 10대 수입국 수입규모 및 비중추이 >

| | 수입액(억 달러) | | | 총수입 대비 비중 | | |
|---------|-----------|-------|--------|-----------|--------|--------|
| | 2000 | 2005 | 2010 | 2000 | 2005 | 2010 |
| 일본 | 415 | 1,005 | 1,763 | 18.4% | 15.2% | 12.8% |
| 한국 | 232 | 769 | 1,380 | 10.3% | 11.6% | 10.0% |
| 대만 | 255 | 747 | 1,156 | 11.3% | 11.3% | 8.4% |
| 미국 | 224 | 487 | 1,013 | 9.9% | 7.4% | 7.4% |
| 독일 | 104 | 307 | 744 | 4.6% | 4.6% | 5.4% |
| 호주 | 50 | 161 | 597 | 2.2% | 2.4% | 4.3% |
| 말레이시아 | 55 | 201 | 504 | 2.4% | 3.0% | 3.7% |
| 브라질 | 16 | 100 | 380 | 0.7% | 1.5% | 2.8% |
| 태국 | 44 | 140 | 332 | 1.9% | 2.1% | 2.4% |
| 사우디아라비아 | 20 | 123 | 329 | 0.9% | 1.9% | 2.4% |
| 총수입 | 2,251 | 6,602 | 13,755 | 100.0% | 100.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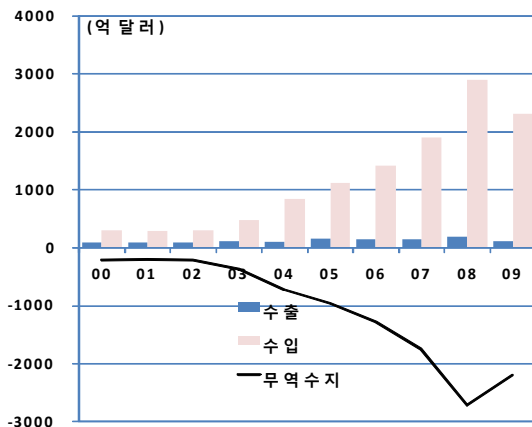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 통계 기준.

○ (품목별 수입) 중국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품과 소비재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반가공품과 자본재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의 전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제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1차 산품에 대한 수입은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음

- 중국의 1차 산품에 대한 수입은 2000년 약 305억 달러로 총수입의 13.5%에서 2009년 2,318억 달러로 23.1%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 한편 1차 산품 품목에 대해서만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0년 약 214억 달러의 적자에서 2009년 2,196억 달러 적자로 그 폭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09년 현재 1차 산품중 석유와 철광 수입이 1차 산품 수입 전체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주요 수입원자재임
- 1차 산품 수입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지속함에 따라 에너지와 원자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중국 1차산품 수출입 >



< 주요 1차산품수입/1차산품수입 비중 >

| (억 달러) | 2007 | 2008 | 2009 | (비중) |
|--------|-------|-------|-------|----------|
| 1차산품 | 1,897 | 2,902 | 2,318 | (100.0%) |
| 석유 | 799 | 1,293 | 893 | (38.5%) |
| 철광 | 338 | 607 | 501 | (21.6%) |
| 비철3개품목 | 123 | 136 | 102 | (4.4%) |
| 석탄 | 24 | 35 | 106 | (4.6%) |
| 곡물 | 5 | 7 | 9 | (0.4%) |

자료: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품목별 HS 코드는 석유(270900), 철광(2601), 비철(동-2603, 니켈-2604, 알루미늄-2606)의 세 부문만 포함, 석탄(270111, 270112, 270119), 곡물(10).

- 중국은 여전히 반가공품 및 부품 등 중간재 중심의 수입 구조를 지속하고 있음
 - 중국의 반가공품 및 부품의 총수입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현재 52.9%로 1차 산품 비중인 23.1%, 최종재(자본재+소비재) 비중인 22.0%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중국의 반가공품 수입 비중은 2000년 38.1%에서 2009년 25.7%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나,
 - 반면 부품 수입 비중은 2000년 24.2%에서 27.2%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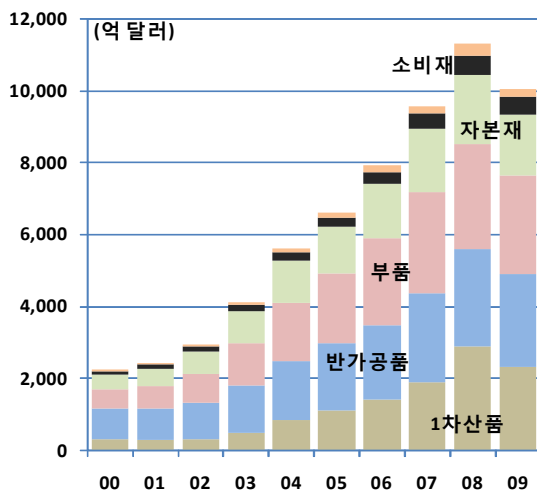
- 최종재 전체의 수입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자본재 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재 수입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의 소비재수입/총수입 비중은 2000년 4.2%에서 2009년 5.2%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 이는 중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소득의 증가로 구매력이 높아져 중국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반면 중국의 자본재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17.5%에서 16.8%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 이는 중국내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인 자본재에 대해 일정 부분 수입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국들의 품목별 대중국 수출구조는 유사한 측면이 많으나 세부적으로 차이가 존재함
 - 2009년 현재 일본과 한국은 대중국 수출중 부품이 해당국의 대중국 전체 수출의 각각 약 36% 및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독일은 대중국 수출에서 자본재 수출 비중이 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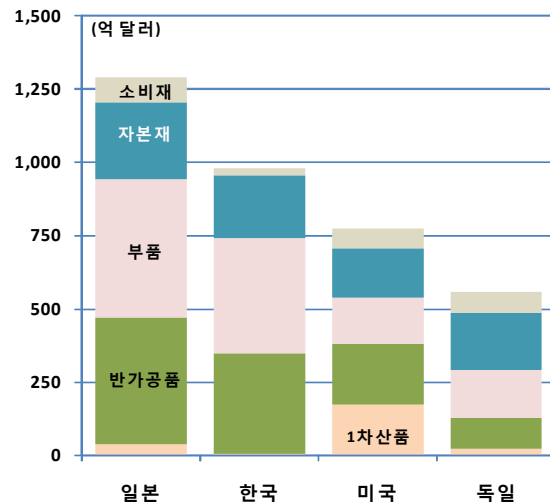
최근 중국 수입 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 반면 미국은 반가공품이 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차 상품이 23%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강국들인 한국, 일본, 독일과는 다소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소비재의 경우 각국의 대중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이 12%, 미국 9%, 일본이 6%인데 반하여 한국은 2%에 그치고 있음
- 이는 한국이 다른 제조업 강국들에 비교해 볼 때 중국의 소비 시장보다는 중국에서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위주의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의 품목별수입 규모 >



<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 구조(2009년) >



자료: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제품별 명칭은 이시욱(2009)²⁾의 분류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

- (가공무역형 수입)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생산기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됨

2) 이시욱(2009),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에서의 수출 집약도 및 다양도의 역할", 한국개발연구 31권 2호, 한국개발연구원.

-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생산기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됨

- 중국통계연감 및 중국해관총서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가공무역/총 무역 비중은 1990년 38%에서 1998년 53%로 상승하는 추세이었으나 이후 하락하여 2010년 현재 39%를 기록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가공수출/총수출 비중은 2000년 55.2%에서 2010년 46.9%로 하락하였으며 가공수입/총수입 비중도 같은 기간 41.1%에서 29.9%로 감소함
- 이는 경제 발전에 따른 임금 등 생산 비용의 증가, 중국 정부의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노력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 가공무역은 크게 가공수출과 가공수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중국의 저렴한 생산 비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 가공수출은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원재료나 반가공품 등을 수입하여 조립하고 3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함
- 가공수입은 중국의 가공무역 생산기지에서 사용되는 원재료, 반제품, 부품 등의 중간재에 대하여 중국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행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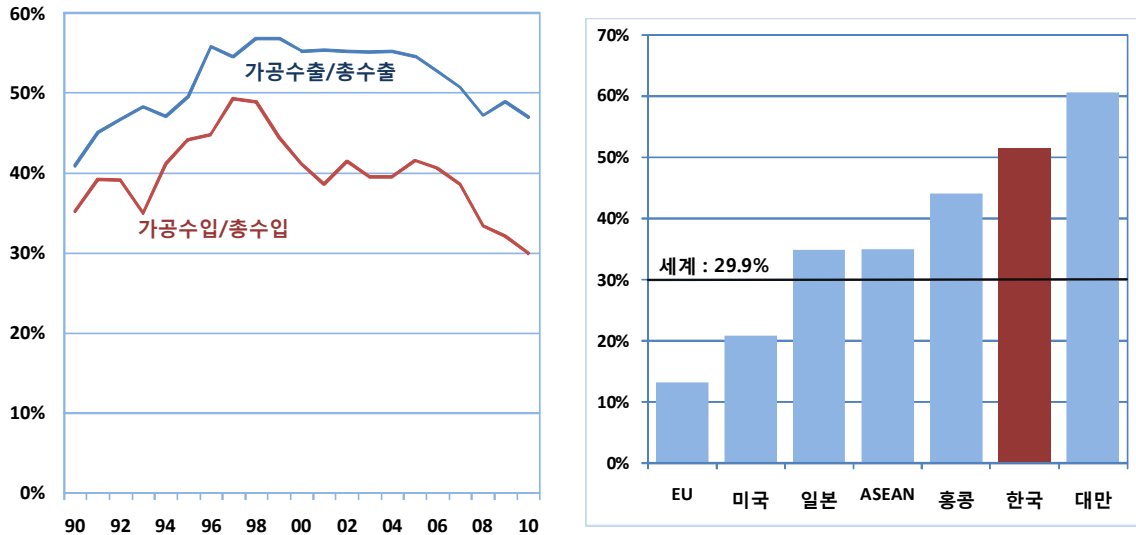
- 중국의 최대 가공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며 한국도 다섯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임

- 가공 수출의 개념은 원부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만든 완제품이 다시 해외로 수출되는 금액임
- 중국해관총서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총 가공 수출 규모는 약 7,403억 달러로 중국 총 수출의 약 47%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중국의 주된 가공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며 그 가공 수출액은 2010년 기준 1,626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EU(1,463억 달러), 홍콩(1,606억 달러), 일본(655억 달러)이며 한국으로는 349억 달러어치의 가공 수출이 이루어짐
- **중국의 최대 가공 수입 대상국은 한국으로 전체 가공 수입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음**
 - 가공 수입의 개념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가공 수출을 위해 해외에서 조달되는 원부자재를 의미함
 - 중국해관총서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의 총 가공 수입 규모는 4,174억 달러로 중국 총수입의 약 3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중국의 주된 가공 수입 대상국은 한국이며 그 가공 수입액은 2010년 기준 712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
 - 다음으로는 대만(700억 달러), 일본(617억 달러), ASEAN(542억 달러)의 순이며, EU와 미국은 모두 200억 달러대에 그치고 있음
- **중국의 국별 가공수입/국별 총수입 비중(국별 가공무역형 우회수출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국가별로는 2010년 기준 대만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1(100%)로 보았을 때 중국을 경유한 가공무역형 우회수출 비율은 약 61%를 기록
 - 한국의 중국을 경유한 가공무역형 우회수출 비율은 대만 다음인 51%를 기록
 - 참고로 가공무역형 우회수출 제품이 대부분 중간재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1차산품, 반제품 및 부품에서 가공무역형 우회수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약 72%에 달할 것으로 추정³⁾
 - 반면, 중국의 가공무역용 수입 비중의 전세계 평균은 약 30%에 불과하며, 일본(35%), 미국(21%), EU(13%)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

3) 2009년 기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 중국의 대 한국 가공 수입 및 중국의 대 한국 총수입에 적용.

< 중국의 국별 가공무역비중 > < 중국의 국별 가공수입/국별 총수입(2010년) >



자료: 中國國家統計局的 中國統計年鑑 및 中國海關總署 자료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3. 시사점

첫째, 대규모 개방 경제인 중국의 원자재 수입 증가 추세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희소 원자재 확보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 향후 예상되는 원자재가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을 확보와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에 주력해야 할 것임
 - 국내 산업계의 제품 생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 선물 시장에서 헷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함
 - 또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중장기 조달 계획 수립, 원자재 구매시 장기공급계약 확대 등이 요구됨
- 중국 등이 활용하고 있는 ODA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원자재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 미개발 자원 부국에 대한 자원 외교와 ODA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원자재에 대한 확보가 필요함
- 특히, 최근 희소금속에 대한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한 민관 공조가 시급한 실정임

둘째, 저부가가치 반가공품보다는 고부가가치 부품 및 자본재에 대한 수출 비중을 늘려나가야 한다.

- 부품과 자본재의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의 원천인 기초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연구 인력의 육성과 글로벌 선도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연구 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관련 학과에 대한 연구 자금 지원, 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 졸업 후 전공 관련 연구직으로의 취직 지원 등의 노력이 요구됨

셋째, 잠재력이 높은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중국 현지 진출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시장 통계보다는 직접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분석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기존 진출 기업이나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 등을 통해 중국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진출 기업 자체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배양을 위해 국내외 관련 인력의 확충도 필요함

- 특히,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중국 문화와 중국인의 정서를 고려한 제품 개발, 마케팅의 현지화 등 기업의 철저한 '중국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구매력이 일정 단계를 넘어선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 브랜드, 고급 내구 소비재에 대한 계층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 한편, 점차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노력도 경주되어야 할 것임

넷째,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억제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을 단순한 가공 무역 기지가 아닌 동북아 지역의 주요 생산단계상 거점 국가로 전환하는 분업 구조의 재편이 요구된다.

- 중국의 경제 발전 단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내수 위주 성장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낮은 생산 비용에 대한 이점이 없어져 중국을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전략은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 정부가 수년전부터 가공수출의 대상 품목을 제한하는 등 가공 무역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단순한 조립생산을 위한 중국 진출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HRI**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별 첨】 BEC의 용도별 산업 분류

| 용도별 명칭 | | BEC 코드 | BEC 품목 명칭 |
|--------|------|--------|---|
| 1차산품 | | 111 | Food and beverages, primary, mainly for industry |
| | | 21 | Industrial supplies not elsewhere specified, primary |
| | | 31 | Fuels and lubricants, primary |
| 중간재 | 반가공품 | 121 | Food and beverages, processed, mainly for industry |
| | | 22 | Industrial supplies not elsewhere specified, processed |
| | | 321 | Fuels and lubricants, processed, Motor spirit |
| | | 322 | Fuels and lubricants, processed (other than motor spirit) |
| | 부품 | 42 | Parts and accessories of capital goods (except transport equipment) |
| | | 53 | Parts and accessories of transport equipment |
| 최종재 | 자본재 | 41 | Capital goods (except transport equipment) |
| | | 521 | Transport equipment, industrial |
| | 소비재 | 112 | Food and beverages, primary, mainly for household consumption |
| | | 122 | Food and beverages, processed, mainly for household consumption |
| | | 522 | Transport equipment, non-industrial |
| | | 61 | Consumer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durable |
| | | 62 | Consumer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semi-durable |
| | | 63 | Consumer goods not elsewhere specified, non-durable |

자료: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통계상 BEC 코드를 분류한 이시욱(2009)의 기준을 따름.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구 분 | | 2008 | 2009 ^P | 2010 ^P | | | | | 2011 ^E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 |
| 국 민 계 정 | 경제성장률 (%) | 2.3 | 0.3 | 8.5 | 7.5 | 4.4 | 4.7 | 6.2 | 4.3 | |
| | 민간소비 (%) | 1.3 | 0.0 | 6.6 | 3.5 | 3.6 | 2.9 | 4.1 | 3.8 | |
| | 건설투자 (%) | -2.8 | 3.4 | 4.3 | -2.3 | -3.1 | -2.9 | -1.4 | 1.5 | |
| | 설비투자 (%) | -1.0 | -9.8 | 29.1 | 30.5 | 26.6 | 15.9 | 25.0 | 8.5 | |
| 대 외 거 래 | 경상수지 (억 \$) | 32 | 328 | 3 | 89 | 99 | 92 | 282 | 197 | |
| | 통 관 기 준 | 무역수지 (억 \$) | -133 | 426 | 30 | 145 | 114 | 128 | 417 | 304 |
| | | 수출 (억 \$) | 4,220 | 3,635 | 1,011 | 1,203 | 1,171 | 1,289 | 4,674 | 5,168 |
| | | 증감률 (%) | (13.6) | (-13.9) | (35.8) | (33.1) | (23.6) | (24.0) | (28.6) | (10.8) |
| | | 수입 (억 \$) | 4,353 | 3,231 | 981 | 1,057 | 1,507 | 1,161 | 4,257 | 4,864 |
| | | 증감률 (%) | (22.0) | (-25.8) | (37.4) | (43.0) | (24.6) | (25.1) | (31.8) | (14.4)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4.7 | 2.8 | 2.7 | 2.6 | 2.9 | 3.6 | 2.9 | 3.0 | | |
| 실업률 (%) | 3.2 | 3.6 | 4.7 | 3.5 | 3.5 | 3.3 | 3.7 | 3.5 | | |
| 국제유가 (평균, Dubai, \$/배럴) | 94 | 62 | 76 | 78 | 74 | 82 | 78 | 88.7 | | |
| 원/달러 환율 (평균, 원) | 1,103 | 1,276 | 1,143 | 1,165 | 1,184 | 1,132 | 1,156 | 1,090 | | |

주: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